

공동주택 4채 중 1채 '30년 초과'...도시경쟁력 저하

광주 24%·전남 27% 노후주택 심화 전국 80만가구 눈앞...3년새 10%p ↑

전남지역의 공동주택 4채 중 1채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도 5채 중 1채가 노후 공동주택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l)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남 내 제

고주택(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은 모두 37만6873가구로, 이 중 27%인 10만1323가구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으로 조사됐다.

즉, 전남의 공동주택 4곳 중 1곳이 노후 주택인 셈이다.

전남 노후주택 비중은 해마다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 2022년 18% (34만1507가구 중 5

만9049가구)였던 전남 노후주택 비중은 2023년 20% (35만3839가구 중 7만1035가구), 2024년 23% (37만485가구 중 8만4094가구)까지 뛰었다.

광주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노후 주택 비중이 16% (41만8333가구 중 6만6977가구)였던 광주는 2023년 18% (42만4907가구 중 7만7297가구), 2024년 21% (44만1781가구 중 9만3351가구), 올해 6월 기준 24% (44만7369가구 중 10만7691가구)까지 치솟았다.

전국적으로도 노후주택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중은 22%로 3년 전과 비교해 10%p 상승했다.

주요 권역별 노후주택 비중은 수도권 21%, 지방 22%였고, 지방 5개 광역시는 25%를 나타내며 주택 4채 중 1채가 노후 주택으로 확인됐다.

K-apl의 공동주택 기준은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다.

시·도별로 30년 초과 공동주택 비중을 보면 대전이 35%로 가장 높고, 서울(29%), 전남(27%), 전북(26%), 인천·

울산(각 25%) 등 순이다.

내년과 내후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내후년까지 준공 후 30년을 넘는 1996~1997년식 아파트는 전국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고주택 중 매년 멸실되는 주택을 감안하더라도 노후주택 비중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부동산R114 측의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노후주택 비율이 계속해 높아질 경우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축소로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전남신보-경남신보 고향사랑기부로 상생 실천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17일 경남신보보증재단과 함께 '남도상생 함께하는 고향사랑' 기부행사를 진행하고,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기부하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상호 기부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천하는 자리였다. 특히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이번 기부는 공공기관 간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남신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사진 왼쪽)은 17일 빛그린산업단지에서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를 방문하여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구현 호남통계청장, GGM서 통계조사 협조 당부

정구현 호남지방통계청장은 17일 빛그린산업단지에서 위치한 광주글로벌모터를 방문하여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통계청은 매년 전국 약 30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현황을 파악, 경제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활용을 위해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호남지역 조사 대상 사업체는 5만개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민간 첫 백신개발센터 '정몽구 미래의학관' 개관

고려대에 명예회장 사재 100억 출연...첨단치료 시설 갖춰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사재 기부로 국내 첫 민간 주도 백신 개발 센터가 문을 열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6일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료원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전 주기 백신 개발 플랫폼을 위해 고려대학교 의료원 내 설립된 의학 연구센터다.

총 1만2213㎡ 부지에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조성되는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백신 혁신연구센터를 비롯해 생물안전센터 및 실험연구실, 유전자 세포 치료 연구개발 및 디지털헬스 기반 정밀의학센터, 첨단치료기술 연구개발센터 등을 갖췄다.

여기에는 신종 병원체를 다루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과 IVIS 광학영상시스템 등 첨단 설비들도 더해졌다.

정 명예회장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사재 100억원을 고려대 의료원에 기부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은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국민 행복이라고 믿었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이곳이 대한민국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보건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식이 16일 고려대학교 의료원 메디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됐다.

중진공,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애로 청취

외국 인력 양성화 등 호소 '도약 프로그램' 현판 전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전남지역 조선해양기자재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조선 중소기업을 방문해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찾아가는 중진공' 일환으로, 중진공 조한국 인력성장사업(비롯해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사장 김정수)과 조합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기업은 대부분 선박 건조, 부품 제조기업으로,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경영

애로가 가장 큰 공감대를 얻었으며, 외국 인력 양성화 방안, E9 쿼터 향상 등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중진공은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중진공 인력지원처에서는 현장의 인력 애소 해소 및 외 기업인력예로센터, 외국 전문인력사업 등의 맞춤형 인력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간담회 후에는 목포시에 소재한 조선업체인 ㈜한국메이드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현판 수여식이 열렸다.

이러진 현장투어에서는 제1공장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상의, 미래내일일경협·일자리 지원 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는 1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내일일경협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3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일경협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개최, 1부는 미래내일일경협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2부는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정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상의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일경협 호남권 지원센터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청년들의 일경협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래내일일경협 사업홍보,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설계 컨설팅, 15~34세 미취업 청년 모집 등의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 내 양질의 사업장에서 일경협을 통한 현장 직무 숙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추진 중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KDM+,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관왕'

광주디자인진흥원 육성...강우준 '마트리시카 렌치' 등 영예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KDM+(코리아디자인멤버십 플러스) 회원들의 디자인 작품작 2건이 세계 3대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KDM+ 회원인 강우준(25·조선대 디자인학과 4년)의 욱모렌치 디자인 등 작품작 2건이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55년부터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r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이다.

올해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등 3개 부문에 66개국 1만1000여건이 출품됐으며, 분야별 130여명의 전문가들이 디자인의 창의성과 완성도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KDM+ 5기 회원인 강우준씨는 러시아의 마트리시카 인형에서 착안한 욱모렌치 디자인 '마트리시카 렌치(Matryoshka Wrench)'로 본상을 수상했다. 다양한 사

이즈의 욱모 렌치를 한 개의 틀 안에 들어갈도록 디자인한 제품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호평을 받았다.

또 4기 회원인 임호현(27·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강은비(여·26·전북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4년)·임민선(여·25·제주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4년) 회원이 협업으로 개발한 데스크테리어(Deskterior) 제품 '포레스트(For Rest)'도 본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새와 나뭇가지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포레스트'는 단순한 사무용품용 넘어 책상 위에서도 자연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이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환경에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감각적이고 즐거운 업무 공간을 제안한 점이 특징이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레드닷 수상으로 KDM+ 회원들의 창의성과 디자인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들이 현장 실무역량을 물론 세계 일류 수준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KDM+(코리아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KDM+(코리아 디자인멤버십 플러스)는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대학생 가운데 역량있는 디자인 인재 선발, 세계 일류 수준의 디자이너로 육성하기 위한 현장실무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 21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연구개발, 국내외 산·학 프로젝트,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박셀바이오 반려견 면역항암제 국제학술지 게재...혈액암 치료

박셀바이오는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연구명 rcLL-15)의 유선종양 임상시험 결과가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논문 게재는 지난달 같은 국제학술지에 실린 림프종 임상시험 결과에 이어 두 번째 성과로, 박스루킨-15가 반려견 고통 완화(유선종양)와 혈액암(림프종) 모두에 치료효과가 있는 면역항암제임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스루킨-15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 반려견 유선종양 수술 후 면역항암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유한양행을 통해 전국 주요 동물병원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번 논문은 국내 18개 동물병원에서 유선종양 진단을 받은 반려견 61마리를 대상으로 시행된 임상시험 결과를 담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박스루킨-15 병용 투여군은 수술 단독군 대비 삶의 질(QoL), 면역활성 지표(Interferon-γ), 염증억제 효과(VEGF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별다른 이상반응 없이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박스루킨-15가 국내 최초 반려견 면역항암제로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주요 국제학술지에 임상 논문이 연속 등재돼 치료 효능이 학술적으로 입증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림프종 적응증에 대한 세계 최초 품목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반려묘 질환 대상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고통해가 빠르게 진행 중인 전 세계 주요 시장을 타겟으로, 박스루킨-15의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